

이혁영 씨월드고속웨리 회장, 이웃사랑 성금 3천만원



목포-제주, 해남 우수영-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웨리 이혁영 회장이 지난 18일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 회장은 평소 사랑과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해오면서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을 맞아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어린이에게 간식을, 사랑의 밥차 여러 신들에겐 특식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이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4억7000만원의 성금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 목포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 챌린지 어린이 창작뮤지컬 공연



기아차 광주공장이 문화예술교육을 후원해 만든 어린이 창작뮤지컬 '내가 가는 길'이 무대에 올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 어린이 창작뮤지컬 '내가 가는 길'을 공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4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래의 문화 예술 꿈나무를 발굴하고 재능 육성교육을 통해 정서적 성장과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챌린지 콘서트를 발대하고 '문화예술교육'에 6000만원을 후원했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70명의 어린이들은 지난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노래·연기·안무 등 교육을 받았고, 뮤지컬 갈라공연을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에서 펼치며 재능을 갈고 닦았다. 이날 무대에 올린 창작뮤지컬 '내가 가는 길'은 기아 챌린지 콘서트를 통해 순수 창작된 작품으로, 아이들에게 세상이 정해진 길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도전과 용기의 메시지가 담겼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전희섭·박용준 회장, 전남체육인재장학금 각각 500만원



전희섭 전남근대5중연맹회장(47)과 박용준 전남체육진흥협회(44)이 각각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500만원씩을 쾌척했다. 전 회장은 박 회장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근대5중연맹과 체육협회의 발전은 물론 전남체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다양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전담했다. 지난 4일 운영철 전남펜싱협회장의 500만원 기탁을 비롯해 전라남도체육회 산하 정회원종목단체장들의 잇따른 기탁으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의 모금액은 총 17억4600여만원으로 집계돼 애초 목표액 2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MLB 심판계의 류현진이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꿈 꾸는 한국인 첫 마이너리그 심판 김재영 씨

김동욱 전 동국대 감독이 부친 프로 경력없이 심판 도전 재수 끝 지난해 싱글A 데뷔 올 첫 140경기 풀 시즌 소화 “한국 심판 역사 쓴다 자부심 우리 선수들 활약 때 힘 나”

류현진의 활약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렸던 2019시즌. 클리브와 배트가 아닌 마스크를 들고 ‘빅리그’를 꿈꾸는 이도 있다. 우리나라 첫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심판, 김재영(40)씨의 이야기다. 김 심판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초청으로 2019 추계 중등학교 야구대회에 참가, 주심꼴을 외쳤다. 김동욱 전 동국대 감독의 아들인 그는 서울 인북중, 중앙고, 대불대(현 세한대)에서 투수로 뛰었다.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루키팀에도 입단했지만 프로 마운드는 밟지 못했다. 심판으로 ‘프로’를 꿈꿨지만 이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2012년 대한야구협회 심판 활동을 시작한 그는 나이가 많아 KBO리그의 꿈은 접어야 했다. 프로 심판 꿈을 포기했던 그에게 광주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파견됐던 그는 트리플 A에서 심판을 했던 일본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2016년 1월 마이너리그 심판학교(MILB)에 도전했다. 의욕만 넘친 그는 1개월의 교육 과정 끝에 탈락했고, 2018년 1월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다른 그라운드에서 서게 됐다. 미국 프로야구는 루키리그, 루키 어드밴스 리그, 싱글A, 더블A, 트리플 A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세분화됐다. 여기에 싱글A는 쇼트, 풀, 하이 시즌 3단계로 나뉜다. 야카데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그는 2018년 두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싱글A 쇼트시즌에서 심판 데뷔를 했다. 올 시즌에는 풀 시즌을 소화하며 빅리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 심판은 “올해 처음으로 풀시즌을 치렀다. 2심제로 140경기를 했다. 올해 체력·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게임수도 많고 모든 게 처음이었다. 4월 4일 시즌이 시작했는데 6월까지 해왔던 것 같다.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돌아봤다. 2심제라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상도 있었다. 김 심판은 “부상도 두 번 있었다. 한번은 포수가 잡지 못해서 158km 공에 가슴을 정

통으로 맞았다. 흠에 들어오던 3루 주자와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고 웃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신분도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올 시즌을 잘 이겨낸 그는 내년 시즌 재계약을 약속받았다. 김 심판은 하이 시즌으로 도약을 기대하며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김 심판은 “매년 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심판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다”며 “확실히 힘이 다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공도 봤다. 그래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더 좋은 야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 심판은 “많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묻는다. 일본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했고 이곳에서 한국은 많이 생소하다. 우리나라 대표라는 생각이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며 “올해 류현진, 최지민 선수 등이 잘해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웃음). 좋은 활약 해줘서 많이 뿌듯했다. 한국 선수와 심판이 만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



20대 학생들이 본 광주의 역사

전남대 사학과 8명 ‘광주다움의 속삭임’ 출판

광주의 역사를 20대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책이 출간됐다. 전남대 사학과 학생들이 광주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를 담은 책 ‘광주다움의 속삭임’(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을 출판했다. (사진) 김병인(역사문화연구원센터장) 전남대사학과 교수의 전공과목 ‘지방사연구법’을 수강한 오승주 등 8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조사·연구를 한 데 모은 책이다. 책은 김 교수의 개괄하는 글 ‘5·18 광주 정신과 헌법(전문)의 역사인식’으로 시작

해 총장조, 양림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곳곳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각장은 ▲불국도 이상국가를 꿈꿨던 무진주(오승주) ▲대춘(待春)의 거리 총장조(김지수) ▲열정과 낭만의 공간, 버드나무 숲(楊林)(박건웅) ▲거리를 휘감은 忠義의 기운(김승환) ▲광주정신을 탄생시킨 1929년의 청년들(홍지용) ▲지금 우리 안의 5.18(백형대) ▲광주의 야구, 야구의 광주(윤순상)



김병인 교수 동경이감(同聲異感)과 대춘(待春)의 거리 총장조(김지수) ▲열정과 낭만의 공간, 버드나무 숲(楊林)(박건웅) ▲거리를 휘감은 忠義의 기운(김승환) ▲광주정신을 탄생시킨 1929년의 청년들(홍지용) ▲지금 우리 안의 5.18(백형대) ▲광주의 야구, 야구의 광주(윤순상)



▲광주다움의 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윤동현)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의 ‘지방사연구법’ 수강생들은 수업 중 완성된 논문으로 ‘전남항토문화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2014·2016년 최우수상, 2017·18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김 교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대에 자신만의 시선으로 광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을 발휘해 보라는 취지에서 책 출간을 기획했다”며 “책 출간을 계기로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교촌치킨, 목포덕인고 전교생에 치킨 쏘다

나눔실천리더 우수학교 선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본부장 최영철)는 최근 목포덕인고등학교 전교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촌치킨이 전교생에게 쏘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목포지역 나눔문화 확산 및 고등학생들의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나눔실천 리더’ 사업의 하나로, 목포지역 8개 고교 중 우수학교로 선정된 목포덕인고를 격려

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체인 교촌치킨 전남지사(지사장 정승재) 후원을 연계해 실시됐다. 교촌치킨 전남지사는 2011년 문화소의 계층 아동들을 위한 오케스트라인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아동들을 위해 300인 분 치킨 나눔을 시작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마다 직접 치킨 트럭에서 손수 튀겨주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일환(광주일보 편집국장)·임수영 씨 장남 민주군=23일(토) 오후 2시20분 상무지구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원성춘·김간순씨 장남 준희(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차장)군, 이상덕·정순순씨 장녀 진영=23일(토) 오후 5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홀. ▲김상욱·공대순씨 차남 병헌군, 김재원(광주제2정부통합전선센터)·김영미씨 장녀 신애영=23일(토) 낮 12시 광주유일교회 3층 분당.

중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위원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외인양육품목지원, 장례지도사 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클리닉’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

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심리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블로그 1인 창업 희망자 1일 속성교육=11월30일(토) 개최, 4차 수강생 모집, 블로그 창업 동호회 062-511-0030.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

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김광자씨 별세. 나봉구·형균(대한전선 사장)·혜경씨 모친상, 김광현씨 빙모상=발인 20일(수) 오전 8시 서구 매월동 국민장례문화원 황궁 201호 062-606-4000.